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경영학적 연구

전영수
(솔로몬경영연구소장, 전북대 경영학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것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역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었다. 본 연구범위는 신약성경의 제1복음서-마태복음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내용은 일반 경영학에서 다루는 변혁적 리더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한 복음사역의 리더십을 고찰하였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①카리스마, ②지적자극, ③개인적 배려)인 세 가지의 하위요소를 중심으로 9개의 성경본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조직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소중함과 존중심이 메말라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정신과 육체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는 혼탁한 영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변혁적 리더십이 성숙된 인격과 신앙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며 선교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점에서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분석보다는 성경에 식견이 있는 다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객관성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 변혁적, 리더십

---

* 주 저 자, 전북대학교 경영학박사, 솔로몬경영연구소장, ysjames0427@naver.com
** 교신저자, 협성대학교 경영대학, 금융세무학과 교수, ithwang@uhs.ac.kr
*** 제 3저자,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부 교수, drhcbong@gmail.com

Ⅰ. 서 론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이다. 그리고 리더십의 가장 큰 위기는 인격의 위기이다"(헨드릭스, 1997)라고 말했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바닥에 떨어진 시대이다. 리더의 리더십이 붕괴되면 그 본인과 가족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가 이끄는 단체, 공동체,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문제는 단순히 리더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리더십의 회복은 중요한 문제이다. 리더십의 정의를 "리더십이란 집단의 행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도록 이끄는 지도자의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존 헴필 & 얼빈 쿤즈). 리더십은 한 마디로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인격,

전문성, 외모, 체력, 재력, 포용력, 지성, 설득력, 추진력, 융통성, 이해력, 경험과 연륜, 처세술 등 수 많은 역할이 리더십의 실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수행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서, 일반적인 학문(경영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 다루는 리더십과 연계하여 연구고찰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특히, 신약성경 제1복음서가 되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였던 선교의 리더십을 면밀하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현대사회는 지나친 물질중심의 가치관에 의하여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소통이 멀어져가고 있다. 지나친 개인주의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확산되고 있으며, 물질만을 추구하는 가치의식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송두리째 내버려지고 있다. 인간으로 출생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network)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있다. 사회활동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혈연관계, 학연관계, 지연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폭 넓게 열어놓지 않으면 현대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조직공동체를 막론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조직구성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실제로 성공한 CEO들은 뛰어난 기술자나 학자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을 잘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무리 과학과 기계매체가 발달되어도 이것을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회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여 왔다. 특히, 21세기에 이르러 인간관계의 형성이야 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문화, 종교, 정치활동에 있어서 사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그 실제의 역할수행 기능과 관련하여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리더에게 어떤 권력이나 금력이 있을 때 따르는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시킬 수는 있어도 자발적인 추종(追從)은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시대 리더십의 위기는 지도자들의 도덕성의 위기요 실패이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리더의 도덕성의 위기는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리더는 추종자들이 더욱 더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줌으로서 리더 자신을 본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기업에 있어서 경영의 목적이나 경영기법의 그 이전에 먼저 '인간' 그 자체의 존재가 가장 우선하는 것이므로 모든 기업의 경영은 바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경영을 좋은 방향으로 또는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결국은 바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가정이나 국가경영의 한 요소로 '인적자원(人的資源)'이 작용하는 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경영철학의 영역은 바로 '인간'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Ⅱ. 예수 그리스도의 변혁적 리더십

2.1 카리스마(Charisma)

2.1.1 나를 따라 오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

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18-22)

"나를 따라 오라"(마4:19)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권위에 입각한 절대적이며 강권적인 명령이다. 그런데 여기서 명령의 효력을 갖는 '따라 오라'(헬, **Δεύτε** 듀테)라는 표현은(마 10:38; 눅 9:23; 눅 14:27)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수행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좇아다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장소적 의미에서 좇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처한 삶의 방법과 목적과 관심을 모두 청산(淸算)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전환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라는 희생적 의미이다(10:38). 곧 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라"(마 4:19)는 명령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진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이런 직업과 새로운 사명을 연결시켜 그들에게 주어질 직무가 사망의 땅과 그늘(16절)에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성령과 복음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구절은 구약성경 렘 16:16을 반영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삼기 위해 어부를 보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 시대가 끝나고 메시야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어부를 보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책에 대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이전(以前)의 직업을 넌지시 언급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듯 주변 환경과 밀접한 일상사를 문학적인 표현(비유)을 사용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다. 제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실로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종해야만 했다. 여기서 '사람'(헬, **ἀνθρώπωί** 안드로포이)이란 복수 용어는 보편적인 것으로서 모든 인류를 말한다. 아무튼 이 명령은 마 28:18-20의 대 선교 명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모름지기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는 데에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르시니"(마 4:21)라는 본문은(헬, **ἐκάλεσεν** 에카레센) 여타의 말씀을 생략하신 채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세웠다. 여기서는 부름에 따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겼다기 보다는 22절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즉각적 순종에 그 초점이 맞춰진 묘사이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마 4:20)에서 '베드로나 안드레'처럼(20절) 야고보 형제는 지체 없는 순종을 보였다. 그러나 여기의 '버려두고'란 말도 그들이 혈연관계를 포기하거나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이전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부로서의 직업에 충실하였지만 이후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만 좇아 제자로서의 소명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부친의 권한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들은 삯꾼들을 부릴 정도로 부유했던 가정과(막 1:20) 인정이 많은 가족들을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바 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弟子道)를 지키는 필수 요건이다. 필자는 본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분석한다.

2.1.2 열 두 제자에게 권능을 주심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1-6)

"그의 열 두 제자"(마 10:1) 이 말씀의 어구는 마태복음에서는 처음 언급되고 있지만 정관사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열 두 사람의 제자들은 이 이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열 두 제자를 임명한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몇몇 예비적 단계(마 4:18-22; 요 1:35-51)과정을 통해서 최종결정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산상수훈 이전, 예수 그리스도가 밤새껏 철야기도한 후 제자들은 택하였고(막 3:13-18; 눅 6:12-16)또한 그들에게 얼마 동안의 제자 훈련을 실시하신 후에야(막 6:7-13; 눅 9:1-6) 비로소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열 두 제자 임명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갑자기 탄생할 개척 교회를 책임질 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열 둘'이라는 숫자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새로운 탄생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2족장이 옛 시대의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 12명의 제자들이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2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론적 갱신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들의 직무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자기들의 선생이신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교훈과 그가 세우신 종교의 본질,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열 둘'이라는 숫자는 이 목적에 가장 적절한 숫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한편으로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숫자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질서하게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을 만큼의 작은 숫자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또한 당시 종교지도자들과도 같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으며 또 자기들의 기교나 재주로 이 종교를 전파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상당한 지위나 신분에 위치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강제적으로 이 종교를 강요할만한 자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보고 들은 대로만 전달하는 정직하고 평범한 상식을 소유한 자들에 지나지 않았다. 본문에서의 사도(使徒; 헬, **ἀποστόλως** 아포스톨로스)의 의미는 '내가 보내다'는 뜻의 동사 '아포스텔론'(**ἀποστόλων**)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냄을 받은 자', '사신'(요 13:16), '선교사들', '대리자들', '전권대사'(엡 6:20)등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본문에는 특별하고도 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권(全權)을 위임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된 특사, 또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확장에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3 성전을 깨끗이 하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 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거기서 유하시니라"(마태복음 21:12-17)

"성전에 들어가사"(마 21:12)의 본문은 마태와 누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즉 월요일에 행해졌던 사건이다. 이 성전은 헤롯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歡心)을 사기 위하여 스룹바벨의 제 2성전을 개축한 것으로 주전 19년 공사를 시작하여 8년 후에 헌당되었고 주후 64년에 이르러 완전히 새 성전으로 완성되었으나, 얼마 있지 않아(주후 70년) 디도(Titus)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멸되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곳은 '지성소' 가 아니라 '성전'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다. 이방인의 뜰은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곳에서는 특별히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짐승, 나무, 새 포도주, 소금, 기름 등이 매매(賣買)되고 있었다.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며,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권위를 위임받고 있었다. 시장이 되어 버린 성전을 다시 기도와 예배의 경건한 장소로 바꾸려는 예수의 정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1) 대제사장 등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칼빈(J. Calvin)에 의하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되었다고 한다. 상인들은 장사할 장소를 얻기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는데, 이 돈 중의 일부는 최종적으로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돈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소매상인들과 제사장들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그들의 상행위는 제사장들의 묵인과 권장 아래서 점차 커져갔는데, 특히 큰 명절 때에는 부당하게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물건을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고 한다. (2)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희생 제사를 거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정화 행위를 통해서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경배가 얼마나 구역질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으며 성전이 물건 판매대와 환전대가 놓인 장터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묵인할 수 없는 신성 모독(冒瀆)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물을 드릴 경우 그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는데 대부분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산 경우는 의심할 바 없이 깨끗하고 완전한 제물로 인정되는 반면에 집에서 가져온 제물들은 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에서 파는 제물들이 흠이 있고 잘못된 제물일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까다로운 검열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하여 흠이 있는 제물을 그대로 제단에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마 21:14)의 본문은 '마태'만이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호산나를 다시 외치게 된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눅 19:47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소경이며 불구자들인 매매하는 모든 자들은 내어 쫓으시고 육신의 불구자들은 맞이하여 영을 고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했다고 보고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고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성전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집으로 만들게 하였다. 또한 출입이 제한된 신체장애자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고침을 받게 함으로써 성전에 대한 우위권, 즉 자신이 '성전보다 큰 이'(마 12:6)임을 입증하였다.

2.2 지적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2.2.1 성전에서의 가르치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마태복음 21: 23-24)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마 21:23)의 본문은 공관복음 막 11:27에 의하면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이며 눅 20:1에 의하면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로 시간적인 배경은 마가에 의하면 화요일이 된다. 성전 곧 이방인의 뜰에서의 예수의 가르침은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한 본격적인 복음전파 행위가 되는 한편 또한 그곳이 유대인 남자와 여자, 아이들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다고 하는 점

에서 전 세계인을 위한 복음전파의 사역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마 21:23)의 본문의 분석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는 종교적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 이들 이외에도 서기관이 섞여 있음으로 해서 완전한 산헤드린(Sanhedrin)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기이(奇異)한 교훈과 소문이 전파됨에 따라 그 소문의 진위(眞僞)를 파악하기 위하여 갈릴리까지 파견되었던 예루살렘 산헤드린의 종교 진상조사단과 같은 임무를 띤 사람들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수의 권위를 문제 삼는 이들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산헤드린의 공식적인 도전이었고 이들의 숨겨진 의도는 예수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는 선언을 하도록 유도(誘導)하려는 것이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마 21:23)의 말씀에서 이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신적(神的)인 것이냐 혹은 인간적인 것이냐 하는 것으로 10절에서 제시되었던 질문, 즉 ‘이는 누구뇨’와 같은 맥락의 질문이다. 그들은 ‘이런 일’에 포함되고 있는 많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요 2:18)라고 묻지 않고 대신 예수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물음은 ‘이런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들의 선생이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가’의 뜻으로,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종교적 지위를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강한 반발이 내포되어 있다.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마 21:23)의 두 번째 질문은 권세의 출처를 묻는 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 보다 본래적이며 그것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대의 경우 백성들을 교훈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委任)은 대개 산헤드린이나 탁월한 랍비가 그들의 정통적 교리의 정신에 입각하여 랍비가 될 사람의 교훈의 타당성을 시험하여 그 정통성이 입증된 후에야 허락되었다고 한다(Edersheim). 물론 이 둘째 질문은 권세의 출처가 산헤드린이냐 스스로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답변도 이 두 번째 질문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2.2.2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심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4: 23-25)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마 4:23)의 본문에서 ‘회당’ 과 ‘가르침’은 밀접한 상관관계이다. 회당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 곳에 곧 회당이 세워지는 근거가 되었다. 회당(會堂)은 유대인의 집회장소를 말하는 것으로(헬, **συναγωγή**, 쉬나고게)라고 표기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 전국 곳곳에 세워진 종교 집회와 교육의 장소로서 신약 교회의 모형이 되었다. 예수 당시에는 작은 마을에도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곳에는 어디에나 회당이 건립되어 있었고, 유대인 랍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만 460개 내지는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한다(Winer). 유대백성들은 안식일이나 주요 명절 때에 이곳 회당에 모여 기도와 율법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 특히 구약 율법서는 여러 지역의 언어로 번역하기도 했으며, 회당장의 허락에 의해 율법 교육에 합당하며 권위 있는 자가 나서서 율법을 해석, 교육할 수 있었다. “가르치시며...전

파하시며...고치시니(헬, **διδάσκων**, 디다스콘...**κηρύσσων** 케릿손...**θεραπεύων** 데라퓨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전도의 세 가지 특수한 양식(樣式)으로서 모두 천국과 그리스도에 의한 통치를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활동이 근본적으로 '교훈'(헬, **διδάσκω** 디다스코)과 관계가 있으며, '전파하다'는 예수 자신이 오심과 함께 천국의 도래가 가까왔다는 '복음'(헬, **εὐαγγέλιον** 유앙겔리온)과 관계가 있다. 끝으로 '고치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축복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행하신 바 이는 흑암의 왕국(16절)이 파괴되고 천국이 '회복'(헬, **ἀποκαταστάσεως** 아포카타스타세오스; 행 3:21)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의 전도 방법(teaching, preaching, healing)은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선교 역사에 계승되었다.

2.2.3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 16-20)

본문에서 "가르치라"(마 28:20)는 분사의 가르침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그 가르침의 목적은 그것을 지키게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로서 그려지고 있다. 사실 본서의 마태복음 저자는 복음서 전체 안에서 예수를 교사적인 인물로 그리는 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가르치라'(헬, **διδάσκοντες ,** 디다스콘테스)는 '생도'(生徒)를 가능한 최고의 발전을 그 목표로 삼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지식 전수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가르침과 학습을 의미한다. 종교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용어는 강한 지적이고 권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단어는 70 인역 본에서 약 100회 나오고 있다. 여러 종류의 가르침이 의도될 수 있지만(삼하 22:35; 신 31:19), 하나님의 뜻이 지적인 관련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관련을 지닌 특별한 가르침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 자신, 한 가장의 가장, 혹은 의인들이 가르친다. 재능을 개발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일반적인 용법과는 달리, 구약성서는 가르침을 인격 전체와 관련시키고 있다. 후기 유대교에서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관계 및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전해주기 위해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지키게 하라"(마 28:20)는 분부의 말씀은(헬, **τηρεῖν,** 테레인)이라 하는데, 은유적으로 간직하다, 유지하다, 지키다, 확고히 붙잡다, 고수하다, 보존하다, 준수하다, 감시하다, 복종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회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제자를 삼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대상은 이제 모든 민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교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에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교회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여 세계선교에 비전(visio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3 개별적 배려(Individual consideration)

2.3.1 오리(五里)를 가게하거든 십리(十里)를 동행하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

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 38-42)

첫째로,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마 5:41)의 본문에서 길 안내자나 또는 민간인들에게 동행할 것을 강요하는 로마 수비대의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즉 본문에서 '억지로 가게하다'의(헬, ἀγγαρεύσει, 앙가류오)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강제적 의미가 강한 '징발하다'는 뜻으로서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이 단어는 페르시아 국왕이 조서를 전달할 때 사람들을 징발하여 짐을 지게 만들거나 문서를 전달하게 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로마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징용하여 군수물자를 규정된 거리(로마 도량형으로 1마일 곧 '5 리', 우리나라 치수로는 약 3 리 정도, 이는 보통 성인의 약 1,000보(步)에 해당)를 운반하게 했다. 한편 이 단어는 마태 27:32에서 '구레네'사람 시몬에게 사용되었는데, 로마인들은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처형 장소에까지 운반하도록 강요하였다. 로마에서는 이러한 양민 징발 규례가 적용되었으며, 로마의 식민지하의 유대에서도 시행되었다. 이 때 규정된 거리가 바로 '오리'(五里)였다. 그러나 본문은 '오리'를 가라는 명령받았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앙심을 품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오리'를 더 동행에 주는 너그러움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다. 둘째로,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42)의 본문에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 주도록 명령할 뿐 아니라(출 22:25; 레 25:37)관대한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신 15:7-11; 시 37:26; 112:5). 이 구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이웃을 향해 열려진 마음의 자세, 즉 더 나은 의(義)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 본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돈을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한정으로 돈을 주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잠 11:15; 17:18; 22:26). 구하는 자에게 준다면 살인자에게도 칼도 줄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한다(Tholuck).

2.3.2 은밀하게 구제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 1-4)

"사람에게 보이려고"(마 6:1)의 본문은 1-18절까지의 서론에 해당된다. 이 단락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세 가지 종교적 의무, 즉 의(義, 2-4절), 기도(5-15절), 그리고 금식(16-18절) 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제시되고 있다. 즉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직접적인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신과 해석을 설명하며 높은 경지의 의(義)를 가르친 후 이곳에서부터는 율법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유전(inheritance)과 관습에 관한 바른 지침 및 그들이 당면할 종교적 위선의 위험성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外飾)적으로 이 같은 종교적 관행을 하고 있음을 비난한다. 여기서 '보이려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아데나이(θεαθῆναι)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제 1부정 과거 수동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란 '그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사람에게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다. 이처럼 전적으로 인간을 의식하고 그의 판단을 고려하면서 취하는 행동은 항상 위선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성을 익히 아시고, 또 그것을 능히 극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고 날마다 신전(神前, Coram Deo)의식을 지닐 때 인간의 오류와 위선은 최소화 될 수 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마 6:2)라는 말씀은 의(義)와 기도(祈禱) 그리고 금식(禁食)으로 삼대별(三大別)되는 유대인의 종교적 의무 중에서 아마 '의'의 일부에 속한 이 구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다. 그러나 외식자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동기(動機)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회당과 거리에서 이러한 종교 의무를 했던 것이다. 실로 그들은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께 '오직 영광'(Sola Gratia, 전 12:13; 롬 11:36)을 돌리는 데는 전혀 무신경했던 것이다.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마 6:3)라는 본문은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도와주며 이 둘은 항상 함께 일한다. 따라서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자신이 베푼 자선을 도무지 기억하지 말고 의식도하지 말라는 뜻이다. 즉 그 선행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듯이 하라는 당부인 것이다.

2.3.3 소자(小子)를 업신여기지 말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태복음 18:6-10)

"소자...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마 18:10)는 본문의 의미는 비록 세상에서 미약하게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개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시사하는 구절이다. "그들의 천사들이"(마 18:10)의 의미는 성경은 국가(단 10:13; 12:1), 교회(계 1:20), 개인을 위한(행 12:15) 수호(守護)천사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수호천사'는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페르시아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을 사람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생각한다. 이처럼 천사들이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봉사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히 1:14). 여하튼 천사들의 수종은 비록 성도가 세상적으로는 비천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므로 결코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본문의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영혼들을 위해 수호하는 천사를 제공하셨다는 교리가 발전되었다(시 34:7; 91:11). "하늘에서...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10)는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난해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또 다른 학자는 수호천사는 '하나님 면전의 천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이 수호하는 영혼들의 안녕을 구원함으로써 그 이중적 사역을 감당한다고 한다. 어떻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뵈옵는다는 것은 마치 왕정 체제하에서의 신하의 배알(拜謁)처럼 매우 각별한 예우와 신임을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왕하 25:19). 즉 수종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존재들인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큰 영광을 부여받은 존재들에게 당신의 백성의 수직(守直)을 명하셨다. 이는 결국 천사들의 위상(位相)의 탁월성을 강조하기보다 '소자'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보호의 충만함과 완전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2-1〉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분석요약

구분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제 4장	[마 4:18-22] 나를 따라 오너라!	[마 4:23-25]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심	
제 5장			[마 5:38-42] 5리를 가게 하거든 10리를 동행하라!
제 6장			[마 6:1-4] 은밀하게 구제하라!
제10장	[마 10:1-6]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심		
제18장			[마 18:6-10]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제21장	[마 21:12-17] 성전을 깨끗이 하심	[마 21:23-24] 성전에서의 가르치심	
제28장		[마 28:16-20]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료출처: 신약성경(N.T) 마태복음에서, 필자: 초안구성.

Ⅲ. 결론 및 시사점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지도자)로 설정하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하게 되는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리스도의 상황적 윤리와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속에서 탁월하신 리더십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조사 결과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율법을 위한 리더십이 아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인간 존중의 리더십이었으며, 인간중심의 리더십이었다. 이를테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는 말씀에서 사람을 위한 복음이요, 사람을 위한 리더십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의 하나인 ‘카리스마 리더십’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리더십의 유형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그러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홍영기, 2001). 그러므로 ‘카리스마 리더십’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자체를 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독재적이고 완력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기가 쉽다. 목회자 역시 사람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와 같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 그리고 영성의 리더십을 배우며 연구하는 자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성(人性)과 신성(神性)

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三位一體)'의 한 분이 되시는 '성자(聖子)하나님' 이시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 의 한 사람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연구의 한계점을 부인(否認)할 수가 없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 재림까지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비롯하여 성경전체(66권)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리더십에 관한 것을 세밀하고, 심층적인 연구의 과제로 삼았으면 한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마음속을 통찰하고, 감성, 지성, 의지력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사람을 다루는 리더십에 통달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우리인류의 영원한 구세주가 어떻게 선교하였으며 어떻게 교육하였는가를 연구하고자 하는 과제를 남겨둔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고성돈 (2000),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관선 (2002),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기찬 역 (1994),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 서울: 생명의 말씀사.

김남용 (2004), 목회자의 리더십 개발전략,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김덕수 (2008), 리더십 다이아몬드,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김보겸 (2004), 마태복음에 나타난 '의' 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준 (2014),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4(4), 69-81.

김상표 (2012), 변혁적 리더십이 신뢰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정 (2003),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선교명령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상충 (2015), 변혁적 리더십과 인간존중의 조직문화에 의한 회복탄력성이 조직구성원의 행복감과 조작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28(4), 829-854.

로고스경영연구원 역 (2005), 성경의 경영원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류가미 역 (2008), 통합의 리더십, 서울: (주)에이지 21.

방남석 (2008),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호주 (2003), 변혁적 리더십과 신뢰가 직무반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성철 (2009),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효능감과 직무몰입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채익 (2009),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중빈 역 (2008),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변혁의 정치리더십, 서울: 지식의 날개.

홍성만 (2010), 마태복음에 나타난 신앙의 역동적 구조(신행일치)에 관한 연구: 산상설교(마태 5-7장)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영기 (2001), 카리스마 리더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국외문헌>

Bass, B. M. (1990), From Transactional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earning to Share the Vision, Organizational Dynamics. 18(3).

Beare, F. W. (1982),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 Translatio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y Francis Wright Beare. San Francisco : Harper & Row.

Calvin, John, (1972),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Translated by A. W. Morrisoll. Calvin's Commentaries. Edited by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3 vols, Grand Rapids : Wm. B. Eerdmans Co.

Epstein, V. (1963), The Historicity of the Cospel Account of the Cleansing of the Temple. ZNW.

Fenton, J. C. (1963), The Gospel of St, Matthew, Pelican Gospel Commentaries, Baltimore: Penguin Books.

Kuhnert, K. W. & Lewis, P. (1987),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 Leadership: A Constructive Developmental Analysi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 648-657.

House, R. J. (1999), Weber and Charismatic Leadership Paradigm: A Response to Beyer,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0, 563-574.

Leithwood, K. A. (1992), The Move towar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ducational Leadership, 49, 8-12.

Maslow, Abraham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Secon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Meler, John. (1979), The Vision of Mattew : Christ, Church, and Morality in the First Gospel. New York : Paulist Press.

Stanton, G. (1983), The Interpretation of Matthew, Philadelphia: Fortress Press.

Tichy, N, M., & Devanna, M. A. (1986), The Transformational leader. New York: Wiley.

Vinger, Gift. (2006), Effectiv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Behaviours for Manging Change. SA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4(2), 1-9.

Wofford, J. C. (1999), Transforming Christian Leadership. Grand Rapids: Baker Books.

Youssef, Michael. (1986). The Leadeship Style of Jesus. Wheaton: Thomas Nelson.

Yukl, Gary A. (1989), Managerial Leadership: A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15(2), 251-289.

주제어 :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 변혁적, 리더십